

'무등산 신앙파크호텔 부지 고급주택 신축' 반대 본격화

신양파크호텔 부지 2만여㎡에 80가구 규모 고급주택 건립

환경단체 "경관 훼손·교통 혼잡 야기...자연 복원 추진해야"

한달간 무등산 탐방로 일대서 범시민 반대 서명운동 펼쳐

광주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옛 신앙파크 호텔 부지에 추진 중인 고급주택 단지 신축과 관련해 지역 26개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

단체들은 무등산의 생태계·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신앙파크 호텔 부지를 녹지로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동 20-8(옛 신앙파크호텔 부지) 등 2만5821㎡ 4개 필지에 고급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개발 사업을 허가

할지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 공동주택 6개 동(80가구)을 짓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해 9월 지역 건설사 등 업체 2곳은 '무등산 신앙 캐슬'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광주시·동구 등 관련 9개 부처와 외부기관 2곳은 개발 행위로 인한 법·교통·환경 영향 문제를 사전 협의했다.

현재 동구는 미비 서류 보완 요청,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이후 동구 건축위원회 심의·유관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맞서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는 '무등산 신앙 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를 구성했다.

반대시민연대 측은 공동주택 단지 계획 철회와 함께 녹지 복원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당초 주거단지 건설

이 불가능한 곳으로, 공동주택 건립은 '도시관리 기본 원칙'에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또 공동주택 건립 시 교통 혼잡 유발·경관 훼손 등 주거 지역으로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이 사업 통과는 계기로 주변 녹지가 '우후죽순' 식으로 개발돼 추가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가 호텔로서의 기능을 다했다면, 환경과 조화를 이뤄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시민연대는 지난달 22일부터 옛 신앙파크호텔 부지 개발 반대 입장을 널리 알리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범시민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에는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 일대에서 거리 서명운동을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가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등산 일대에서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 무등산 난개발 대책 요구'거리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진행했다.

반대시민연대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거리 서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 시와 시의회에 서명서를 전달, 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이만희 총회장 재판 출석 감영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과실치사' 의사 벌금 700만원→500만원 감형 왜?

정맥 아닌 동맥에 관 삽입했다가 제거...환자 사망

의료행위 잘못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A(33)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한 대학병원 신경과 2년 차 전공의(레지던트)로 일하던 2014년 5월 7일 간질 증세로 입원한 환자인 20대 여성 B씨를 치료하면서 카테터(가느다란 관)를 정맥이 아닌

동맥에 넣은 잘못으로 B씨를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실 이후 지도 교수와 영상 의학과 전문의 교수에게 시술 당시 상황을 보고한 뒤 지시를 받고 카테터를 제거했다.

B씨는 제거 직후 심장이 부풀고 혈압이 급격히 저하됐다. 심장내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했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쇄골하정맥 카테터 삽입 시술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의 오름 대응책 기수부를 천자하는

결과를 일으켰다. 이후 다른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열악한 의료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의 선처 의사, 다른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이 기여한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별목하다가 쓰러진 나무에 머리 다친 50대 사망

15일 오전 10시57분께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거리 야산에서 별목작업을 하던 A(57)씨가 작업 중 쓰러진 나무에 맞았다.

강릉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원들이 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주변 동료들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강원도소방본부 제2항공대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유나기자

'화물차 배송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금책 2명 구속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건넨 돈을 가로챈 뒤 화물차 24시간 배송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려고 한 수금책들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뒤 총책에게 건네려고 한 혐의(사기 등)로 A(20)씨와 B(2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경 광주 북구 한 PC방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

받는 등 광주·전주 등지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6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B씨는 A씨가 모아온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4000만 원을 비닐봉투에 담은 뒤 24시간 화물차 풀 배송을 통해 서울에 있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산구 한 숙박업소 앞에서 '피해금을 담은 비닐봉투를 서울 용산역까지 당일 배달해달라'고 화물차 기사에게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화물차 기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경찰서를 방문, 신고했다.

경찰은 잠복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으며, 배송지인 서울 용산역까지 쫓아가 중간 전달책 B씨도 검거했다.

김미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